

2011. 9. 12.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 축일

NOVA BELLA ELEGIT DOMINUS !
하느님께서서는 새로운 전쟁을 택하셨다!

1. 보기 - 수도회 창설

마리아회의 기원에 대한 랄란느 신부의 증언 (보르도 1817 봄)

어느 날 첫 번째 사람인 랄란느가 찾아와 [...] 자신이 한 삶의 양식에 불림을 받았다고 믿으며 그 삶의 형태가 신심회의 지도자께서 하시는 일들과 닮았다고 말하였다. 이 신뢰에 샤미나드 신부님께서서는 거의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신 것 같아 보였고, 기쁨에 찬 탄성을 울리며 대답하셨다.

“이것이 내가 오래 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뜻은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분께서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신 후 내가 30년 동안 추구해 온 계획을 실행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셨다.

“수도생활은 그리스도교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교에 속한 것은 인간에 속한 것입니다. 또한 수도생활은 교회 안에서 소멸될 수 없으며, 교회는 세상에서 소멸될 수 없습니다. 수도자없이 복음은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원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수도회없이 그리스도교를 세우려는 것은 헛된 일일 것입니다.(...) 단지 혁명 전과 같은 형태의 수도회들을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도 수도 생활의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한 수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도자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덜 될 것이고, 그들이 어둠에 빠지기는 더 어렵게 될 것이므로 세상과 교회는 더욱 잘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니 삼 서원을 하는 수도회를 만듭시다. 그러나 이름도, 제복도, 사회적 신분도 없이...

Nova bella elegit Dominus

(하느님께서서는 새로운 전쟁을 선택하셨습니다. (판관 5, 8 불가타 성서))

그리고 모든 것을 지옥에서의 마지막 승리를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께 맡겨두신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보호 아래 돕시다.”

“그녀가 너의 머리를 짓밟으리라.”(창세기 3, 15 불가타 성서)

마침내 그분은 평소와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렇시다, 나의 아들이여! 겸손하게 여인의 발꿈치가 됩시다.”¹

2. 평가하기 (상상하기)

- 1) 샤미나드 신부님께서서는 구약성서에서 취한 두 성서 구절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분께 있어서 그 구절들은 중요한 것이며 그분은 자주
거기로 되돌아가신다. 첫 번째 성서는 마리아니스트들에게 있어서 표어처럼
여겨졌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서는 새로운 전쟁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그리스도교의 전략적 적응, 수도생활의 단순한 “새로운 형태
”를 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상황”에 대한 수도생활을 원하셨다.
그것은 특히 “약속된 여인이신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께 근거를 둔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는 믿음에 대한 장엄한 서약”이다. 거기에 샤미나드
신부님께서 싸워야 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복음적 새로움”이 있다.

- 2) 그것은 불가타본 성서 판관기 5 장 8 절의 드보라의 찬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이며 어머니이다. 그녀는 하느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또한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행동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을 보호할 지도자들이 부족했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났으니 그녀를 통해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승리를 가져오셨다.

주님께서서는 싸우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택하셨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

판관시대에 여예언자 드보라는 그녀의 현존을 통해 또 다른 여인인 야엘이 적장을
죽일 것이라고 알리며 이스라엘군의 승리를 장담한다.

그리고 그 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드보라는 야엘의 업적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가를 부른다.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어라!” (판관 5, 24)

- 3) 샤미나드 신부님께서서는 드보라가 자신의 찬가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아셨고, ‘아베 마리아’라는 찬사가 거기서 나왔음을 아셨다.
그분은 그것이 믿음에 대한 부르심이었음을 아셨다.

¹ 장 바티스트 랄란느, 마리아회 역사에 관한 간단한 소개, 보르도 1858, 6~7쪽

장-바티스트 랄란느와 만났던 다음해, 샤미나드 신부님께서는 신앙을 주제로 하는 같은 표어로 수도회 창립 피정의 목상을 바친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전쟁을 선택하셨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무기는 그토록 많고 그토록 힘센 적들이 있는 세상에 대항하기에 너무 나약한 무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는 인간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주님께서는 모든 힘이 배치되어 펼쳐져 있는 앞에서 가장 하찮고, 가장 약해 보이는 무기들로 적들에게 승리하기를 좋아하신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하느님의 백성이 승리 할 것을 예상했던 것과 같이 교회의 승리들 안에서 볼 수 있다. (...) 우리 또한 같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같은 무기들로, 신뢰와 용기로 같은 싸움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²

샤미나드 신부님께 있어서 “새로운 전쟁”은 하느님께서 걸보기에 가장 약하고 가장 하잘것 없으나 신앙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싸워온 그분의 종들을 통해 시작하신 것이다. 그리고 원죄없으신 분은 이 신앙에 대한 약속을 표시하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그분께 붙어있으면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

샤미나드 신부님의 카리스마적 직감인 이 확신은 신심회의 지도자로서 수도회 창설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그분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자주 그 모습을 드러낸다.

3. 행동하기

- 1) 마리아니스트로서의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어떻게 당신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현재 어떤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까?
- 2) 현재, 여러분(당신 그리고 당신의 공동체)은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보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도 모임

배경 : * 드보라가 정의를 실현했던 장소를 상징하기 위해 종려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을 배경으로 십자가를 기도실 중앙에 높이 배치한다.

* 바닥에 동정 마리아(성모상)를 모신다.

* 성모상 주변에 여인들과 성녀들을 모시고, 물론 그들과 함께 아델, 마리 테레즈 라무르즈, 샤미나드를 모시고 그 장면을 목상한다.

음악 : 마리아와 예수께 찬미를 드리는 곡

2 1818년 피정, M. 랄란느의 필기, EP 5,24,67~70,480쪽

1. **성서 : 판관기 4 ~ 5 장 드보라의 역사와 찬가를 다시 읽기**

5 장 8 절에서 다음 문장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Nova bella elegit Domunus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전쟁을 택하셨다.)”

그것은 이미 설명한 대로 불가타본 성서 해설에 첨가된 것이므로...

그러나 이 문장은 이 찬가에 아주 잘 맞는 제목이다. 물론 성경 본문은 모든 지나친 해석을 피하고 정확하면서 복음의 빛에 따라 읽어야만 한다.

샤미나드 신부님에 의하면 복음에서 이 두 여인은 원죄없이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을 상징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론 악을 이기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침묵 중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2. **당신은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십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드보라의 찬가를 떠올리며 성령에 가득 차 하신 축복의 첫 부분이다. 신앙의 여정에서 만났던 용기 있고 축복받은 여인들을 기억하고 마리아와 함께 그녀들을 축복하자.

기도 대상 : 신앙 여정에서 만난 용기 있고 축복받은 여인들

오늘날 예수께서 그녀들의 협력을 청하며 다가가실 다른 여인들

(예 :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 순서

- ㄱ) 성모송 (각 구절마다 멈추어가며 음미하면서 바친다.)
- ㄴ) 기도 지향 (각자 신앙 여정에서 만난 용기 있고 축복받은 여인들 언급)
- ㄷ) 축복 후렴 (축복의 의미를 지닌 후렴구를 선택해 부른다.)

3. **태종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엘리사벳의 축복은 “마리아에서 시작하지만 그 목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마리아니스트의 표어가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출발하여 아들에게로 가는 길이다.

- * 신앙의 승리를 위해 원죄없으신 분을 선택하셨던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찬미하기□
- * 십자가위의 예수께로 시선을 집중하기□
- *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 긴 축복의 기도문 작성하기.

(P. 에밀리오 까르드나 - SM 폴란드)□□